



Contents

- 03 의료시설의 목재 써리기념병원 중환자 치료병동
- 05 국내 목조건축 사례 '수퍼-E®' 인증 받은 국내 첫 CLT하우스
- 09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4월 ~ 7월 활동사항8월 ~11월 활동계획

[건축박람회 일정]

2017. 8. 24(목) ~ 8. 27(일) / KINTEX 제45회 MBC 건축박람회 2017. 9. 7(목) ~ 9. 10(일) / EXCO 2017 대구경향하우징페어 2017. 9. 14(목) ~ 17(일) / BEXCO 2017 부산경향하우징페어 2017. 10. 12(목) ~ 10. 15(일) / CECO 2017 경남건축인테리어전시회 2017. 10. 20(금) ~ 10. 22(일) / ICC JEJU 2017 제주경향하우징페어 2017. 11. 1(수) ~ 11. 4(토) / COEX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2017. 11. 9(목) ~ 11. 12(일) / KINTEX 코리아우드쇼 2017 2017. 11. 15(수) ~ 11. 18(토) / COEX 한국건축산업대전 2017

표자나진: Surrey Memorial Hospital Critical Care Tower, BC, Canada (Credit: www.naturallywood.com)



의료시설의 목재

써리기념병원 중환자 치료병동

Credit: www.naturallywoo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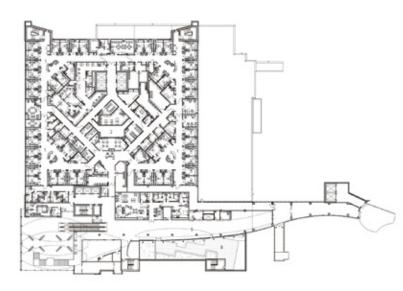
640,000ft2 (59,400m2) 면적의 중환자 치료병동은 브리티시 콜럼 비아 역사상 가장 큰 의료시설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써리기념병원 에 대한 이 확장공사는 비씨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커뮤니티 에 세계 최상급 가족중심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병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치료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토대로한 디자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급성환자치료 침상과 특수화된 정신건강 및 소아과 구역을 갖춘 신설 응급실(캐나 다에서 가장 큰)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요소로는 성인 중환자실,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 브리티시 콜럼비아 의과대학의 임상 캠퍼스 를 위한 추가 공간,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신 의료 기술을 갖춘 실험실이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관리는 직원 안전과 함께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모든 병실은 햇볕이 들고 지정 가족공간이 있습니다. 감염관리, 유니버셜 디자인 그리고 재난대비 또한 프로젝트에 있어 주요 우선순위이며, 비씨주 전역의 커뮤니티를 위한 세계 최상급 의료서비스 이용을 확대 할 것입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목재우선법의 요건을 반영해 프로젝트는 획기 적이며 적절한 목재 사용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자인은 구조나 장식용으로 많은 눈에 보이는 목재요소를 특징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치유에 전념하는 시설로써의 건물 기능을 지원하는 따뜻한 천연의 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 2층 평면도



목재는 엄격한 유지보수 절차에 잘맞고, 날씨와 UV 피해에 우수한 저항력이 필요하거나 감염관리를 돕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 이치에 맞는 구역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도에는 캐노피와 클래 딩용 구조부재 그리고 실내용 목공제품, 내벽 마감과 차음패널이 있습니다.

목재사용은 지붕이 덮인 외부통로, 차에서 내려주는 곳, 신설 서쪽 입구 그리고 중환자 치료병동과 기존 병원을 이어주는 연결부와 같은 공공 접점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재사용은 스트 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자연 및 야외와의 연결을 강화시켜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될 로비는 노출된 구조용 중목, 패널 그리고 목공제품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지붕은 최소한의 연결로 된 긴 경간을 만들도록 설계된 조립제작 패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건축법은 크고 큰 건물에 대한 중목구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에 목재를 사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병동 기초로부터 로비가 돌출되기 때문에 설계가 가능했고 따라서 화재안전 관점에서 별개 구조물로 고려됩니다.

타워의 남쪽 정면과 포디움의 외벽에 매우 눈에 띄도록 외장 소핏과 합성물 형태의 클래딩으로 나무를 사용할 것입니다.

"나무가 전해주는 따뜻함과 안락함을 조성하길 원했습니다. 자연과의 연관성은 실질적으로 우리 신체를 좀더 균형잡힌 상태 로 되돌려준다고 기본디자인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위급시에 차분한 공간에서 심박수와 혈압을 낮출 수 있다면. 상황을 극복 해야하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위해서도 정말 좋습니다. 나무가 프로젝트에 가져다주는 측면을 생각하면 어려운 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가치가 있다 생각합 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건축가도 혜택을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에는 나무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Marco Buccini, Fraser Health Authority







의뢰인

Fraser Health Authority

CEI Architecture Planning Interiors와 Parkin Architects 합작

구조설계

Bush Bohlman and Partners

목재공급

StructureCraft Builders Inc

드로잉및렌더링

CEI Architecture Planning Interiors와 Parkin Architects 합작



국내 목조건축 사례

'수퍼-E®' 인증 받은 국내 첫 CLT하우스

취재 구선영(주택저널) 사진 왕규태 (주택저널)

한 평생 목재 연구에 매진해 온 대학교수가 정년을 1년여 앞두고 지은 집. 그 집은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탐색 하고 있다. CLT라는 새로운 목구조방식을 적용해 국산목재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가 하면, 에너지절약형주택 수퍼-E® 인증을 받아 고효율주택 대열에도 합류했다.

■ PLAN

- + 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 +지역 지구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용도 단독주택
- +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1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지하층) + CLT(벽체) + 경량목구조(천장)
- + 건물높이 9.20M 건축면적 119.13m²
- + 연면적 266,71 m² 용적률 산정연면적 174,55 m²
- + 건폐율 19.97%(법정 20% 이하) 용적률 29.24%(법정 100이하)
- + **주차대수** 2대 조경면적 298.30m²
- + 설계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주)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 + 수퍼-E® 기술자문 캐나다 수퍼-E®사무국,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 벽돌로 마감한 단층집에는 거실과 주방이 위치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지구 외곽에 가면 교수마을이라는 전원주택단지가 있다. 90년대 중반 서울대교수들이 동호회를 꾸려서 터를 닦은 곳이다. 올 봄 이 단지에 입주한 이전제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는 동호회를 조직한 원년 멤버다. 이 교수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서울을 떠나지 못하다가, 정년퇴직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야 집 을 짓고 마을 식구가 됐다.

그런데 이 집은 지을 때부터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는 사례가 전무한 CLT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CLT(Cross Laminated Timber)는 목재를 직교로 붙여서 단단하게 만든 구조용집성판이다.

골조는 물론이고 벽과 바닥, 천장에도 시공할 수 있다. 개별 CLT 유닛의 두께와 길이는 구조계산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혁신적인 디자인도 가능하다.

대학에서 목구조를 전공한 후 대학교 교단과 국내 유수의 문화재 현장을 오가며 평생 목재와 살아왔다는 이 교수가 CLT로 집을 짓겠 다고 마음먹은 데는 나름의 큰 다짐이 스며있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나무 빌딩이 지어지고 있어요. 오스트리아에는 6층짜리 목조건축물이 즐비하고 최근 캐나다에서는 18층짜리 나무 기숙사를 지어요. 이게 다 CLT라는 새로운 구조용집성판이 개발되 면서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CLT에 접근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만 좋을 집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집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이 교수의 결심이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국내산 나무로 제작한 CLT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국산 낙엽송과 국산 소나무로 CLT를 직접 제작해 실험했고, 그 결과 구조용재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천마디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교수는, 내가 먼저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보자는 마음으로 실험적인 집짓기에 나서게 된다.



- 1. 도로변에 길게 뻗은 이층집이 단층집과 안마당을 살짝 가려준다.
- 2. 주방과 연계되는 데크는 넓게 설계해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변의 전망도 두루 볼 수 있는 곳이다.

CLT 표면을 그대로 드러낸 실내

집을 짓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공법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랜 인연이 있던 설계자와 시공자, 목재산업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다.

고생 끝에 지어진 CLT하우스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CLT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내 도로보다 높게 형성된 마당에 올라서니 채 나눔을 통해 이층집과 단층집을 연결해 놓은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도로변에 놓인 이층집이 팔을 펼쳐 정원을 품고 있는 듯한 형태여서 아늑한 느낌이 강했다.

외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나무결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사이딩이다. 일본에서 방부와 흰개미방지 약재가 처리된 목재 사이딩을 가져와 이층집에 세로로 붙였다. 이 교수는 이 사이딩에 쓰인 약재를 입힌 나무를 10년간 땅에 묻어두고 변화 추이를 살펴본 터였다. 그 결과 기능만큼은 분명한데다 삼나무의 색이 크게 변하지 않기에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CLT하우스의 실체는 집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내로 들어서니 벽이 온통 나무다. 국내산 붉은 낙엽송을 그대로 노출해 붉은 기운이 강하다. CLT가 가장 잘 드러나는 거실 벽은 마치 나무로 조각보를 만들어 놓은 듯 CLT 유닛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이어져 있다. CLT가 적용되지 않은 천장은 하얗게 도장해 붉은 기운의 나무와 모던한 대비를 이뤄냈다.

CLT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지만 이 집은 벽체에만 적용하고 있다. 천장과 바닥은 경골목구조 방식으로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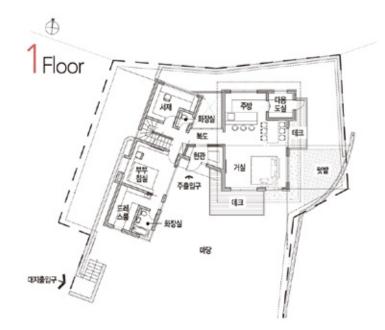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탓이다. CLT 골조공사를 비교해보니 중목구조에 비해 2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었다.

나무가 몇 배로 더 쓰이니 당연하다.

"CLT의 비용은 대규모로 짓거나 여러 채를 한 번에 짓거나, 또는 CLT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지을 때 많이 절감됩니다. 공사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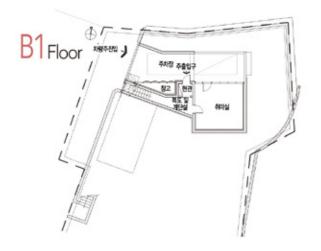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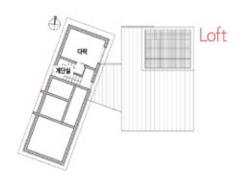
- 3. 1층 현관에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안방을 만난다. 벽에 드러난 나무가 국내산 낙엽송으로 제작한 CLT다.
- 4. 햇살 가득한 침실. CLT 벽체가 곧 인테리어 소재가 되고 있다.
- 5. 2층 복도에서 만난 뜻밖의 공간. 창호지를 붙인 접이식 문을 달고 종이장판을 깔아 전통 적인 멋을 낸 다실이다. 올라앉 았을 때 눈높이에 닿는 긴 창을 내놓은 것도 엿보인다.
- 6. 2층의 복도. 벽전체가 CLT다. 기성이 좋고 구조적으로 튼튼하다.











- 7.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공간 취미실. 지하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했다.
- 8. CLT를 결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철물도 사용된다.
- 9. 거실에 놓인 테이 블은 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한 CLT로 만든 것이다. 벽안에 감추어진 CLT의 단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 10. 실내외에 환기구가 보인다. 강제환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국내 2호 수퍼-E® 인증 획득

CLT하우스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수퍼-E® 인증을 받은 주택이기도 하다. 수퍼-E®는 캐나다의 친환경 목조주택 프로그램으로 목재를 사용해 가장 에너지효율적인 설계를 적용한 모델이다.

이 교수는 기밀성과 단열성능이 우수한 CLT 구조에 수퍼-E®가 요구 하는 단열성능을 추가하고 폐열회수환기시스템을 장착하니 저에너지 주택을 완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독일 패시브 인증은 엄격하고 제한적인데 비해 캐나다 수퍼-E® 인증 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범위에서 접근하기 좋더군요, CLT와 만나니 시너지 효과도 나고요. 앞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라도 CLT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구조에요. 벽 전 체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내진에도 강한 구조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위판과 아래 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창틀처럼 개구부 윗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등 시공 내내 이 교수의 고민이 적지 않았다.

"우리 집을 지으면서 경험한 문제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정책 건의를 할 생각이에요. 집짓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 - 7월 활동사항

4월 1일

우드유니버시티 WBI (목조건축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과정) 18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후원하는 목조 건축 전문 교육기관 우드유니버시티 WBI (목조건축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과정) 18기가 4월 1일 개강 하였다. 우드유니버시티 WBI과정 은 목조건축관련 법규와 기준에 준한 교육을 통해 경골목조건축을 포함한 목조건축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국내 최고 목조건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05년부터 매년 4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WBI 과정 18기는 8월 19일까지 교육이 진행 되며 교육생들은 매년 캐나다우드에서 주최하는 캐나다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WBI 과정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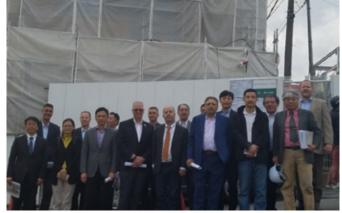
WBI 과정 18기 수업

4월 25일 - 28일

캐나다우드그룹 아시아 대표단 회의 참가

캐나다우드그룹의 아시아 대표단 회의가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 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캐나다, 중국, 일본, 인도 및 한국 5개국의 15명 대표단 이 참석하여 각 나라별 목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주력 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각 나라의 대표단들은 3일간의 일정 동안 심도 있는 주제 발표, 토의 및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갖고, Ibaraki Prefecture에 소재한 Polus Tech's Post & Beam Pre-Cut 생산공장, Saitama Prefecture에 소재한 Mitsui Home Component사의 2x4 트러스 제작 공장 및 Kanagawa Prefecture에서 불연 2x4 공법으로 Issiki Architects & Partners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고 Nagai Construction Co., Ltd. 건설 회사에서 시공 중인 3층, 2,200m2 규모의 노유자시설 현장을 방문 하는 등 공업화목조건축의 선진기술을 습득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각 나라별 시장접근 및 개발활동에 접목될 예정이다.



Kanagawa Prefecture에 위치한 2x4 노유자시설 공사현장에서 캐나다우드그룹 한국사무소 정태욱대표와 각국의 대표단들



회의 장소인 Tokyo, Shinkiba에 소재한 Lumberman's Hall 건물

5월 8일 - 10일

한국-캐나다 국가식물검역기관 회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와 캐슬가에서 3일 간 개최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캐나다 식품검 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미팅에 동행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재목 열처리의 추적성에 대한 논의와 확인. 그리고 열처리 시설과 과정에 대한 실사의 통역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은 방역 을 위해 반드시 목재 내부 중심온도를 최저 56도 이상으로 최소 30분 이상 유지하는 열처리(Heat Treatment, HT) 또는 고열건조처리 (Kiln-Dry Heat Treatment, KD-HT)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미팅과 실사를 통해 캐나다의 업계와 방역 당국이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열건조처리(KD-HT)를 위해 건조로(Kiln)로 투입되는 제재목







5월 24일

캐나다 통상장관 방한, 목재산업 비즈니스 리더스 가담회 개최

프랑수아 필립 샴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통상장관이 5월 23-24일 방한 일정 중에 한국 목재산업 리더들을 초대하여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샴파뉴 통상장관은 캐나다 목재를 수입 또는 유통하고 있는 한국의 목재 산업 관계자들과 목조건축 설계를 활발히 하고 있는 건축가들 을 초대하여 캐나다 목재를 홍보하고 앞으로 한국의 목조건축 시장 이 더 발전되길 바라며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도 간담회에 참여하여 통역을 하며 양국 이해 관계에 도움을 주었다.

5월 29일

2017 부산 우드 페스티벌 설명회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의 6개 대학 담당 교수들을 초대하여 올해 3회째 계획중인 '부산 우드 페스티벌' 설명회를 파크 하얏트 부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신라대에서 담당 교수들이 참석하였으며 2017 부산 우드 페스티벌의 취지와 기본 계획 을 캐나다우드에서 설명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를 통해 2017부산 우드 페스티벌의 주제는 '색이 있는 나무' 로 선정되었고 추후 참석했던 대학 중 5개 대학이 참가하기로 결정하 였다.





2017 부산 우드 페스티벌 포스터

6월 30일

2017 캐나다 수퍼-E®기술연수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7월 4일 출발하는 2017 캐나다 수퍼 – E® 기술연수 참가자 21명을 대상으로 국내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양재동 교육장에서 진행하였다. 국내 사전교육은 오전 3시간동안 캐 나다 현지에서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Webinar로 진행됐으며 수퍼-E® 기술연수의 이론 교육 제1강과 제2강이 캐나다우드 통역으로 진행 되었다. 오후에는 캐나다 기술연수 준비를 위한 주의사항과 숙소 등 안내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이 연수에 대한 질의 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7월 4일 - 15일

2017 캐나다 수퍼-E®기술연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의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UFV), 수퍼-E®사무국과 공동으로 목조주택에 최적화된 캐나다의 저에너지 기술표준인 수퍼-E®에 대한 이론강의와 실습, 그리고 현장 견학으로 구성된 10일간의 수퍼-E®기술연수를 캐나다 비씨주 칠리왁에서 진행 하였다. 올해 3번째로 진행된 이번 수퍼-E®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오전에는 수퍼-E®에 관한 이론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이론을 바탕 으로 직접 실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실제로 공사중인 캐나다 수퍼 - E® 주택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수퍼-E®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열 및 기밀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을 바탕으로 소형실습주택을 짓고, 완성 후 기밀성테스트 등을 통해 기밀성 시공이 에너지 효율주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며 21명의 연수생은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와 수퍼-E®사무국 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2전 수퍼-E® 이론교육



오후 수퍼-E® 소형주택 실습



수퍼-E® 현장 답사

7월 11일

경기도시공사 - 캐나다 수퍼-E® 사무국 -드림사이트코리아 MOU 체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경기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 코리아. 캐나다 에너지 효율 수출기업 연합 (Energy Efficient Exporters Alliance, EEEA)/캐나다 수퍼-E® 사무국은 국내 최대 154세대 목조주택 단지로 개발 중인 경기도 가평 달전지구의 캐나다 빌리지 13세대 신축 주택을 수퍼--E® 표준을 적용하여 시공하기 위해 기술. 훈련 그리고 마케팅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7월 11일 캐나다에서 체결하였다. MOU 체결식은 캐나다우드 주최로 수퍼-E® 고에너지 효율 목조주택의 설계와 시공 기술 연수가 진행되고 있던 캐나다 프레 이저밸리대학교에서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한 윤극한 과장, 수퍼-E® 사무국을 대표한 캔 클라센(Ken Klassen) 그리고 드림사이트코리아 이광훈 대표, 양해각서 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 캐나다우드 한국 사무소의 정태욱 대표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으며, 양해각서 체결을 축하 하기 위해 캐나다 연수에 참가 중이던 한국 목조건축 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주었다.





왼쪽부터 수퍼-E® 사무국, 드림사이트코리아, 경기도시공사

7월 17일 - 19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산림투자혁신기관 (BCFII) 국제 마케팅 부사장 방한

캐나다 BC주 산림투자혁신기관(Forestry Innovation Investment, FII) 의 브루스 존(Bruce St. John) 국제 마케팅 부사장과 캐나다임산물 연구소(FPInnovations)의 데이비드 펠(David Fell) 시장조사 팀장이 7월 17일-19일 방한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주관으로 목조건축 한국 시장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와 회의를 하였으며, 국내 최대 다층(지상4층) 목조건축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부 종합연구동을 방문하고 국내 최대 다 세대 목조주택단지를 진행중인 경기도시공사의 북한강동연재 현장을 방문하는 등 3일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북한강동연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브루스 존 부사장, 정태욱 대표. 데이비드 펠 팀장 (왼쪽부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8월 - 11월 활동계획

8월 19일

우드유니버시티 WBI (목조건축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과정) 18기 수료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후원하는 목조건축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우드유니버시티의 WBI(목조건축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과정) 18기의 종강 및 수료식이 8월 19일 양재동 교육장 에서 개최된다. WBI 18기는 지난 4월1일 개강하여 5개월간 매주 토요일 교육을 받았으며 30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받을 예정이다.

9월 11일 - 17일

2017 부산 우드 페스티벌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Wood is Good' 이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의 5개 대학과 '2017 부산 우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7 부산 우드 페스티벌은 동서대학교 와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의 건축과 디자인 전공 학생 80명이 참가하며 $6\sim$ 8동의 소형목조주택(Play House)을 부산경향하우징페어 기간 동안 옥외전시장에서 직접 실물 제작하여 부산지역 어린이시설에 기증하는 행사이다. 부산경향하우징페어 기간 에 벡스코(BEXCO) 옥외전시장을 방문하면 학생들이 Play House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하는 것을 참관할 수 있다.

9월 14일 - 17일

2017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7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부스 방문자에게는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 서적과 브로셔 등을 무료 배포하고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캐나다산 구조재에 대해 홍보를 할 계획이다. 페어 기간 동안 부산의 5개 대학과 함께 '2017 부산 우드 페스티벌' 을 옥외전시장 에서 진행하며, 영남지역 건축가와 목조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Tall Wood Mass Timber 간담회와 목조건축 세미나도 진행한다

9월 16일

부산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2017 부산경향하우징페어 기간 중 부산과 경남지역의 건축가와 시공사,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목조건축 세미 나를 개최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초 5층 목구조 건축물을 소개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라멘조 건축물에 적용 할 수 있는 우드월의 국내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가 진행되며 점점 발전 하고 있는 국내 목조건축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미나 참가자에게 현존하는 최대 높이 목구조 건축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에 있는 Brock Commons 책자 2부를 다양한 기술서적, CD와 함께 배포한다.

9월 27일

목조건축 내진설계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경주 지진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는 내진 설계기준에 발맞춰 건축사 및 목조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목조건축 내진설계 워크샵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20여년간 북미에서 건축구조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캐나다 구조기술사 주종 범 소장을 캐나다우드에서 초대하여 북미의 목구조 내진설계와 중층

 $(4 \cdot{\circ}\sim 6 \cdot{\circ})$ 목구조를 소개하고 충남대학교 장상식 교수가 목구조 내진 설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Simplified Wall Bracing Method를 소개한다.

10월 15일 - 25일

2017 캐나다우드 목구조 내진설계기술 미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와 미국, 일본 3개국을 방문하여 목 구조의 내진설계기술을 습득하는 2017 캐나다우드 미션을 학계 및 건축 설계, 시공자를 모집하여 10일간 개최한다.

이번 미션은 캐나다 임산물연구소(FPInnovations)와 미국공학목재 협회 (APA-The Engineered Wood Association)를 방문하여 캐나 다와 미국 내진설계전문가의 강의와 실험실 테스트를 경험하고 내진 설계 강국인 일본에서 Midply Wood Shearwall 기준 습득과 제작 공장, 현장 등을 방문하게 된다.

11월 4일

우드유니버시티 WDO (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소프트웨어 실무 과정) 16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목조건축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우드유니버시티의 WDO(목조건축 구조 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 과정) 16기가 11월 4일 개강한다. 우드유니버시티 WDO과정은 목조 건축 구조설계 전문과정으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후원으로 목조 건축 구조를 검토 및 설계할 수 있는 Software 'WoodWorks Design Office' 교육용 버전을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프로그램 사용 법과 구조설계 실습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우드유니버시티 교육 수료자는 캐나다우드에서 주최하는 캐나다 목조 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1월 15일 - 18일

2017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7 한국건축산업 대전에 참가한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스를 방문하는 건축사들에게 목조건축 기술 자료와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우드월(Wood Infill Wall)과 CLT(Cross Laminated Timber), NLT(Nailed Laminated Timber) 등 대형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목자재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 중 건축가와 목조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목조건축 내진설계 워크샵을 개최하며 다양한 홍보를 계획 중이다.

11월 17일

목조건축 내진설계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2017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대한건축 사협회 회원 건축사와 목조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목조건축 내진 설계 워크샵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건축구조 중 가장 내진설계에 유리한 목구조를 소개하고 목구조 내진설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이번 워크샵은 참가자에게 캐나다의 18층 목구조 건축물 Brock Commons 책자 2종과 목구조 내진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책자와 목구조 표준상세 CD를 배포한다.

Did you know





현재 공사 중인 가장 높은 목조 고층 건물

- 이름: HoHo
- 규모: 24층, 84미터
- 용도: 복합 (주거, 업무, 호텔, 상업 등)
- 장소: 비엔나, 오스트리아
- 준공: 2018년 말
- http://www.hoho-wien.at/

사진출처: http://biznes.onet.pl/wiadomosci/swiat/drewniany-wiezowiec-hoho-vienna-tower-w-austrii/0syhdz



서울시 서초구 서초구 매헌로 54-1, 3층 T: 02-3445-3835 F: 02-3445-3832 www.canadawood.or.kr